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용기

본문 : 창세기 19장 1-22절

* 쉬운성경으로 성경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 1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 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 2 롯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내겠소."
- 3 그러나 롯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주자, 그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 4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 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 5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 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 6 롯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 7 롯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오."
- 8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한 적이 없는 딸 둘이 있소. 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오."
- 9 롯의 집을 에워싼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네 놈이 먼저 혼 좀 나아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롯을 밀쳐 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 10 그 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 11 두 사람은 문 밖에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12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의 다른 친척이 있소? 만약 있으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 13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오."

- 14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 15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에 심판이 임할 때에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 16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끌고,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 17 두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려면 이 곳을 피해야 하오.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오."
- 18 그러자 롯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19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산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산에 이르기도 전에 재앙이 닥쳐서 저도 죽을까 두렵습니다.
- 20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도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저 성은 참으로 작지 않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가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21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에도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 주겠소. 당신이 말한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소.
- 22 하지만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이 저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소돔을 멸망시킬 수 없소." 그러므로 그 때부터 그 성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렸습니다.

**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인 10인이 있는지 확인하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는 천사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나그네 대접하는 모습에서 의로움을 알 수 있습니다.
2. 늦은 밤, 롯의 집에 소돔의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님들을 욕보이겠다고 소돔을 피웠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말리고, 딸을 주겠다며 말려보지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3. 천사들은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후 롯에게 이 성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니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롯은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만 장난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결국 두 딸과 아내를 롯은 소돔을 탈출합니다.

4. 소돔의 멸망이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되는지, 천사는 롯에게 골짜기까지 뒤를 돌아 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도망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돔은 죄로 멸망하게 되었지만 롯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5. 그러나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산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산에 도달하기 전에 재앙에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산까지는 무서워서 못가겠습니다. 그러니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저 성은 정말 작지 않습니까?”
6. 롯을 살리기 위해 천사는 롯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롯이 말한 작은 성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멸망에서 예외가 된 작은 성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7. 롯도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믿음에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8. 소돔의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멈추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멸망을 경고했지만 농담으로 여겨 무시합니다. 비록 스스로는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롯의 믿음은 이웃과 가족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9. 또 롯은 멸망 중에 구원을 약속받는 감사의 순간에도 골짜기로 뛰어갈 자신이 없어서 작은 성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10. 롯은 자신은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가족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이었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용기있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11.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 24절, 쉬운성경)
12.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야고보서 2장 26절, 쉬운성경)
13. 믿음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믿음을 따라 용기를 내서 행동합시다.

*** 부모님과 함께 토론해보세요!

1.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을 비교해봅시다.
2. 어떻게 용기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